



산정초 '숲 체험 프로그램'.

'100개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
광주·전남 13개 학교 비결 보니



산정중 'PD 실습'.

질문노트·독서의 힘...꿈·열정을 가르치다

교육부의 '2015년 전국 100개 교육과정 우수학교'에 광주·전남 13개 초·중·고교가 이름을 올렸다.

초등학교로는 ▲산정(광주) ▲아산 ▲관기 ▲사창 ▲음전 ▲광양기야 ▲영암초교(이상 전남) 등 7곳이 뽑혔다. 중학교는 광주 산정중, 영광홍농중, 장성백암중 등 3곳이 선정됐고 고등학교에서는 전남 녹동·도초고 등 2곳이 포함됐다. 특성화고의 경우 여수석유화학고가 이름을 올렸다.

'교육과정 우수학교'로 선정된 학교에는 뭔가 비결이 하나씩 있었다. 창의적이고 지역 실정을 반영한 개성넘치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교장·교사의 열정과 학부모가 지원하면서 동참한다는 점이다. 아이들 사이에서 '가고 싶어하는' 학교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도 이들 학교의 공통점이다.

◇산골학교, 아산초교의 힘 = 화순 아산초교는 백아산에 둘러싸인 산촌 벽지학교다. 다문화 및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 자녀가 많은데다, 인근에 교육·문화 기관도 전무하다. 학교가 교육·보육을 책임지는 역할을 해야 하는 셈이다. 학교는 이같은 점을 고려해 학생들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인)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힘(사이드)을 키워 창의성과 인성을 드러내도록 하는(아웃) 교육 목표를 중점을 뒀다. 이른바 '인·사이드·아웃' 교육과정이다.

덧밭·숲 체험 및 가꾸기와 백아산 등반 프로그램이 학교 주변 환경을 활용했다면 '백아바위 질문노트'와 '브릿지 독서·토론' 프로그램은 소규모 학교의 특수성으로 인한 다양하고 깊이있는 토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생각하고 토론하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한 가지 이상 질문을 매일 '질문노트'에 적는 자신만의 질문 카드를 만들고 온라인으로 지역 공공기관·타 지역 학교와 화상으로 연결해 독서·토론 수업을 받는다.

◇폐교 위기에서 찾아오는 농촌학교로 = 여수 관기초교는 급격한 학생수 감소로 폐교 위기에 내몰렸다가 인성·감성교육을 강화하는 교육으로 우수 학교에 이름을 올렸다. 전 학생들이 늘면서 교실이 부족할 정도로 인기 있는 농촌학교로 자리잡았다는 게 전남도교육청 설명이다.

지역적 특색을 활용한 자연 생태체험, 소

교사·학생·학부모 삼위일체

폐교 위기를 '가고 싶은 학교'로

규모 학교 이점을 살린 감성예술활동 시간을 늘리는 등 체험 중심의 교육과정을 편성한 점이 두드러진다. '에코스쿨'이라는 명칭으로 가족 뒷밭을 가꾸는 '판타지 발드룬이야기'와 자신의 나무를 정하고 가꾸고 편지쓰는 '숲체험 활동', 자연을 표현한 동시를 배우고 쓰는 '에코동시교실', 재활용품을 활용한 생활용품 만드는 '에코환경교실', 동물사육장을 조성하고 연못 생태를 배우는 '동물농장' 등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이 적지 않다.

◇장성 백암중 =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백암인 프로젝트'가 눈길을 끈다. 자연과 문학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1박 2일간 체험 프로그램을 갖는 한편, 3년간 100권의 권장독서를 읽도록 하는 '글빛 세상 同go同樂!'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자연과 문학의 만남의 경우 '천관산과 장흥 문학의 만남'이라는 주제에 맞춰 천관산을 오르고 '사람의 맨발'이라는 한승원 작가의 책을 읽은 뒤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깊이 있는 토론 시간을 갖는 식이다.

◇고흥 녹동고 = 농어촌 미래학교로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의사소통능력·창의성·협업능력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춘 인문학 프로그램 'Fly in 문학'이 특색있는 교육과정으로 꼽힌다.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난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펼쳐온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은 1박 2일 독서토론크 프 뿐 아니라 학부모와 함께문학 답사를 가는 '길 위의 in 문학' 프로그램과 소논문 쓰기대회에도 참여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신안 도초고 = 목포에서 배를 타고 2시간 넘게 가야 하는 섬 지역 학교임에도, '찾아오는 섬교육'을 내세울 정도로 교육 과정이 남다르다. 50%가 넘는 3년 이하 신규 교사들의 열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특징이다. 특히 '나·너·우리가 일궈가는 high 도초' 프로그램 중 '1004 마음밭을 가꾸는 나'라는 주제에 따라 진행되는 '우리 반 1인 1Reader', '1인 1화본 가꾸기와 동물사육' 등은 학생들의 자아 성찰·발견에도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영광 흥농중 = '영광' '애' 프로젝트를 통한 우리 애 뿌리다지기'를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육성중이다. 영광지역 예술제 참여·백해안도로 등 둘러보기, 지역 출신 작가, 작곡가 음악 연주, 지역 자라 3분 말하기 대회 등 영광 문화 관련 교실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려는 프로그램이 눈길을 끈다.

◇광주 산정초 = '자·신·감(자유롭고, 신나고, 감동)이 있는 교육 과정'에 따라 학생들이 즐겁게 다지고 싶은 학교로 만들려는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다. 학생 스스로 꾸미는 '200인의 손 그림 벽화', 'EQ(Exciting QR)로 만들어가는 학교식물지도' 등은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프로그램이다.

이외 장성 사창초교는 'I-Best (1배움)·2(운동)·3(악기)' 재능 꿈동이 교육'이라는 명칭의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광양 기야초교는 '반짝반짝 별별 동아리 활동'을, 영암초교는 '월출길 걷기로 자연인 기르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생태적 감수성을 키우며 소중한 여기는 '꿈과 끼를 키우는 에코 힐링 교육'으로 우수 교육과정 운영 학교에 뽑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교육과정 우수학교

광주	
산정초, 산정중	
전남	
초	아산초, 관기초, 사창초 음전초, 광양기야초, 영암초
중	영광홍농중, 장성백암중
고	녹동고, 도초고 여수석유화학고

막대한 지원금 받고 싶은데... 걸림돌은 많고

지역 대학이 구조조정 고심

정부발(發) 대학 구조개혁(광주일보 2015년 12월 30일자 1면)이 본격화되면서 지역 대학이 초긴장 상태다. 사회 수요에 맞춰 구조조정한 대학으로 선정되면 연간 최대 30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지방대학로서는 사활을 걸며 뛰어든 데세다.

반면, 사실상 '인문계열 축소, 이공계 확대'가 불가피한데다, 선정 과정에서 가산점 부여 등으로 지역 총장 선출 방식과도 연계된다는 점에서 구성원간 반발이 불거지는 격화될 조짐도 감지된다. ◇조선대 '초안' 들여다보니 = 조선대가 정부의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PProgram for Industrial needs - Matched Education·PRIME)에 맞춰 마련한 초안은 인문계 정원 300명 가량을 이공계로 돌려 '사회 수요 선도대학'으로 선정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16개 단과대를 14개로, 81개 모집 단위를 56개로 줄이면서 ▲글로벌경영대학 ▲ICT 융합대학을 중심으로 한 이공계 확대가 골자다.

조선대 인문계 정원 축소 추진 전남대 등 '프라이미' 참여 밝혀

인문계 확대 학내 반발 우려

총장 선출 연계 갈등 '딜레마'

글로벌경영대의 경우 4개 학부(유럽·아시아지역학부, 국제학부, 경영학부)로 재편된다. 외국어대가 유럽·아시아 지역학부로 포함되고 정외과·무역학과 국제학부로 구성하고 경영학부에 체육대 스포츠경영학·공대 산업공학과의 새 학과가 들어온다.

인문대의 경우 국문·영문·철학과 외에 문화컨텐츠학부를 신설, 인문문화대로 명칭을 바꾼다.

국문과는 한문학과·문예창작과가 통합되면서 정원을 80명으로 기존(130명)보다 감축하고 문화컨텐츠학부에는 역사문화학과(역사학과), 언론미디어학과(신문방송학과), 미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를 두는 초안이 나왔다.

법대와 사회대를 법사회대로 통합하고 사범·미술·체육대는 기존 틀을 유지한다. 다만, 사범대 정원은 조만간 나오는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전망이다.

공대에는 ICT 융합대학이 신설되는 등 대규모 증원이 이뤄진다. 융합대학은 기존 전기전자정보공과대학의 명칭만 바꾸면서 융합학부가 신

설되는 게 특징이다. 공대 재료공학과와 경우 나노소재공학과 명칭을 바꿔 융합학부로 옮겨오자 자연대 의생명공학과도 바이오메디컬공학과로 바뀌면서 융합학부에 포함된다. 아울러 미대 디지털이미징공학과도 융합대학 내 융합학부로 만들어질 계획이다.

융합학부 외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라는 특성을 반영한 미래자동차학과도 새로 만들어지는 등 '전기전자정보통신미래자동차공학부'가 새로 만들어져 융합대학에 포함되는 것도 초안에 들어 있다.

◇학내 반발·총장 선출과 연계되면서 갈등 = 지역 대학에서는 프라이머리와 관련, 사실상 '인문계열 축소, 이공계 확대'라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광주대도 정원의 10% 가량인 160명을 줄여 프라이머리(대형) 조건을 갖추겠다는 복안으로 3~4개교 폐교 및 자동차와 신설안을 구성중이며 호남대는 인문계열 2~3개 학과를 폐지하는 데 대한 의견을 수렴중이다.

전남대 지방문 총장은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프라이머리(소형)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사업 취지를 고려하면 인문계 확대 논란이 빚어질 수 없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학과가 폐지되거나 통폐합되는 데다,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력 배출에 무게를 두면서 나머지 학과축 반발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당장, 조선대의 경우 초안이 공개되면서 일각에서는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조선대는 그러나 초안을 공개한 뒤 2주간 단과대학별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대면 설명회 등을 거쳐 초안을 보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며 사업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학생 수가 줄고 수년 간 등록금이 등궤되면서 봉착하게 되는 재정난 해소 이외에도 다른 대학이 선정, 학생 지원금이 쏠리게 되면 경쟁에서 밀려나게 돼 더 힘들어지게 될 것이라는 위기의식도 반영됐다.

프라이머리 선정 요건 중 고등교육 정책과의 연계(가산점) 정책도 충분한 논란거리다. 교육부는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시 '대학구성원참여제' 운영 여부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입장으로, 대학 총장 선거를 앞둔 조선대·전남대로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4월 말까지 프라이머리 추진을 위한 19개 대학을 선정, 3년간 6000여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곡성, **농가 전원** 주택

- 곡성군 입면 송전리 233-6번지
- 대지 72평, 건물 28평(실평), 텃밭
- 1층, 2012년 준공, 시멘트 벽돌조
- 광주에서 25분, 금호타이어에서 1분
- 시세 7천만원 매매 4500만원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동구 수기동 23-2번지
- 20층중 6층, 70평, 즉시 입주
- 사무실 전용, 분할가능
- 감정/시세 1억 6천만원
- 매매 1억 1천만원

금호동, **근린상가**

- 서구 금호동 243-6번지
- 서광병원 4거리 코너, 구/7080자리
- 7층 701호, 120평, 전망최고
- 감정/시세 7억, 모든 업종 오픈가능
- 매매 5억 6천만원

남구, **송하동 임야**

- 남구 송하동 산77번지
- 2026평, 도로에서 200m 지점
- 풍암동 대주 3차아파트 인근
- 시세/감정가 8천만원
- 매매 4000만원

싸고 좋은 물건,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회사직거래
H.010-3605-5000

나주, **혁신 도시** 대지

- 나주시 빛가람동 506-4번지
- 부영아파트(783세대) 신축부지 후문 앞
- 코너, 78평, 점포주택지(3층)
- 시세 4억 매매 3억원
- 대출 1억 3천만원 있음

화순, **전원주택지**

- 화순군(읍) 다지리 산 12-7번지
- 동면방향, 광덕교차로에서 5분
- 대지328평, 33필지 중 1
- 기반시설 조성 중(화순군청)
- 시세1억 6천만원 매매1억1천만원

나주, **세지면 임야**

- 나주시 세지면 내정리 산12-4번지
- 89평, 2차선 도로에 접함
- 현재 밭으로 이용 중, 세지 복초 인근
- 시세 2천만원 매매 550만원

금호콘도, **회원권**

- 법인, 무기명, 등기제, 35평
- 분양가 3500만원
- 매매 2000만원